

素問運氣七篇 및 遺篇의 眞僞에 관한 考察

I. 緒 論	62
II. 運氣七篇의 眞僞	62
1. 七篇의 補入과 陰陽大論說	62
2. 七篇은 결코 僞書가 아니다.	63
3. 篇卷浩大와 素問諸篇과의 相關性에 대하여	64
4. 《七篇》은 《陰陽大論》일 가능성이 크다.	66
5. 運氣學說의 成立時期	68
III. 素問遺篇의 眞僞	68
IV. 結 論	70
參考文獻	71

素問運氣七篇 및 遺篇의 眞僞에 관한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尹暢烈

I. 緒 論

현재 통행하는 《黃帝內經素問》은 唐의 王冰이 次注하고 宋의 林億등이 新校正하고 明의 顧從德이 간행한 판본이다. 현존하는 素問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부분은 運氣七篇과 遺篇二篇 이외의 篇目으로 素問이 成篇될 때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부분은 王冰이 補入한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六元正紀大論과 至眞要大論의 소위 運氣七篇大論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부분은 素問遺篇이라고 불리어지는 刺法論과 本病論의 부분이다. 그러나 후세의 몇몇 醫家들, 예를 들어 王履는 《醫經溯回集》의 四氣所傷論注 중에서, 繆希雍은 《神農本草經疏》에서, 張飛疇는 《傷寒兼證析義》 등등에서 王冰이 內經의 原文을 補入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日人 香川修德은 《一本堂行餘醫言》에서 “아마 王冰 자신이 내용을 증가시킨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物徂徠는 《牛渚漫

錄》에서 “後人들의 의견이 섞여 들어 간 것이 또한 많다.”¹⁾라고 하였다.

또한 혹자들은 七篇大論의 분량이 浩大하여 素問의 前後篇 등과 일치하지 않고 素問의 나머지 篇과 이치가 상통하지 않으므로 僞書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七篇의 大論은 결코 王冰이 출처불명한 내용을 삽입한 僞書가 아니고 《黃帝內經》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古醫書인 《陰陽大論》일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 보고 이어서 素問遺篇에 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運氣七篇의 眞僞

1. 七篇의 補入과 陰陽大論說

王冰은 素問을 次注한 序文에서 原書는 본래 九卷이 있는데 “第七一卷을 師氏藏之하여 今之奉行은 惟八卷爾라”²⁾고 하였다. 이 말은 唐代에

1) 王琦等, 運氣學說의 研究與考察, 北京, 知識出版社, 1989. p. 206.

2) 王琦等 素問今釋 서울 成輔社影印 p. 17.

동행하던 《素問》은 이미 一卷이 遺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第七卷의 遺失은 그 이전 시대로써 皇甫謐은 《甲乙經》序에서 이미 亡失이라고 언급하였고 隋書經籍志에서는 梁의 七錄을 인용하여 “八卷”이라고 하였다³⁾. 또 齊梁간의 全元起가 內經을 注할 때 第七卷이 없었으며 隋代의 楊上善의 《太素》에도 運氣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王冰은 《素問》을 撰注할 때 “先生郭子齋堂에 受得先師張公秘本하니 文字가 昭晰하고 義理環周하야 一以參詳에 群疑冰釋이라 恐散於末學하야 絕彼師資세 因而撰注하야 用傳不朽하고 兼舊藏之卷하야 合八十一篇 二十四卷하야 勒成一部라”⁴⁾고 하여 유실된 부분을 보충하여 현재의 素問을 완성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宋代에 이르러 林億등은 詔敕을 받들어 本書를 新校正할 때 王冰의 序文 속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詳素問第七卷컨대 亡已久矣라 按皇甫士安은 晉人也라 序《甲乙經》할새 云亦有亡失이라하고 《隋書·經籍志》載梁《七錄》하야 亦云止存八卷이라하고 全元起는 隋人으로 所注本에 乃無第七이오 王冰은 唐寶應中人으로 上至皇甫謐甘露中히 已六百餘年이로되 而冰自謂得舊藏之卷이라하니 今竊疑之라 仍觀《天元紀大論》, 《五運行論》, 《六微旨論》, 《氣交變論》, 《五常正論》, 《六元正論》, 《至眞要論》 七篇컨대 居今 《素問》四卷하고 篇卷이 浩大하야 不與《素問》前後篇卷으로 等하며 又且所載之事

與《素問》餘篇으로 略不相通이라 竊疑此七篇은 乃《陰陽大論》之文을 王氏ㅣ 取以補所亡之卷하니 猶《周官》에 亡《冬官》이어늘 以《考功記》로 補之之類也라 又按漢張仲景《傷寒論》序에 云 撰用《素問》, 《九卷》, 《八十一難經》, 《陰陽大論》이라하니 是《素問》與《陰陽大論》은 兩書甚明이어늘 乃王氏并《陰陽大論》于《素問》中也라 要之컨대 《陰陽大論》은 亦古醫經으로 終非《素問》第七矣라.”⁵⁾

新校正에서는 運氣七篇에 대해서 《素問》原書의 내용이 아니고 王冰이 《陰陽大論》의 내용을 가지고 보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언급으로 뒷 부분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어쨌든 新校正에서 “篇卷이 浩大하야 不與素問前後篇卷으로 等하며 又且所載之事가 與《素問》餘篇으로 略不相通”이라고 언급한 이후 七篇이 素問의 原文인가 僞書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논쟁의 요점을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서 七篇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七篇은 결코 僞書가 아니다.

僞書論者들의 주장은 皇甫謐, 全元起, 楊上善 등이 素問을 注할 때 이미 第七卷이 없었으니 뒤에 王冰이 原書를 찾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七篇은 僞書일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僞書論者들이 주장하는 근거와 王冰序 속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함을 발견할 수

3) 魏徵等, 隋書, 北京, 中華書局, 1992. p. 1040.

4) 王琦等, 上揭書, p. 17.

5)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 2.

있다. 王冰은 이미 “今之奉行 惟八卷耳”라 하였고 遺失된 一卷을 “師氏藏之”라 하였다. 師氏가 간직했을 가능성이 과연 없는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우리는 秦始皇이 焚書한 이후 민간에 흩어졌던 冊을 漢나라 때 “求遺書于天下”했던 상황이 있었음을 살펴 볼 수 있으며 2천여년간 망실되었던 《孫子兵法》이 출토되어 근년에 다시 重視되었던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七篇이 망실되었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또 우리는 王冰의 학문하는 태도가 대단히 엄격했다는 것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그는 《素問》을 增補하거나 刪編할 때의 과정을 하나하나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其中簡脫文斷하여 義不相接者는 搜求經論所有하여 遷移以補其處 하고 篇目墜缺하여 指事不明者는 量其意趣하여 加字以昭其義하고 篇論吞并하여 義不相涉하고 闕漏名目者는 區分事類하여 別目以冠篇首하고 君臣請問에 禮儀乖失者는 考校尊卑하여 增益以光其意하고 錯簡碎文과 前後重迭者는 詳其指趣하여 削去繁雜하여 以存其要하고 辭理秘密하여 難粗論述者는 別撰《玄珠》하여 以陳其道라 凡所加字는 皆朱書其文하여 使今古必分하고 字不雜糅라”⁶⁾ 하였다. 위의 논술은 다섯가지로 개괄할 수 있는데 하나는 遷移補缺하여 醫理를 완전하게 한 것이고, 두번째는 加字昭義하여 문자를 통창하게 한 것이며, 세번째는 分篇冠題하여 篇目を 분명하게 한 것이고, 네번째는 인물의 신분을 살펴 禮儀에 합당하게 하였으며, 다섯째로 錯簡碎文과 前後重迭者를 刪繁存要하였

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王冰의 정리는 주로 篇目を 編次하고 字句를 따지고 이치와 문자를 주석한 것이지 결코 經文을 새로 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鍼解篇》의 마지막의 내용을 解釋할 수가 없자 “此一百二十四字는 蠹簡爛文으로 義理殘缺하여 莫可尋究요 而上古書라 故且載之하여 以存后之真本也라”⁷⁾하여 함부로 解釋을 덧붙이지 않았다.

또 《五運行大論》 중의 빠진 글자를 그대로 빠진 채로 두고 다른 글자를 보충하지 않았으며 《刺法論》과 《本病論》 兩篇의 亡失에 대해서도 實事求是하여 제목만 두고 注에서 亡失이라 하여 八十一篇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增補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王冰이 학문하는 태도는 嚴格하여 함부로 三墳之書중의 하나인 內經에 妄筆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王冰이 “時於先生郭子齋堂 受得先師張公秘本”과 “兼舊藏之卷” 등이 헛된 말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조금도 없다. 皇甫士安이 缺一卷이라고 말했고 全元起도 第七卷을 缺하여 第七卷을 注달지 못했다는 것에 근거하여 僞書論者들이 亡失되었던 책이 다시 출현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하지만 王冰도 第七卷을 缺했다고 말하고 秘本을 찾고, 또 秘本을 보존했던 사람의 성명까지 밝히고 있으니 僞書라고 쉽게 속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3. 篇卷浩大와 素問諸篇과의 相關性에 대하여

6) 王琦等, 上揭書, pp.17-18.

7) 王冰, 上揭書, p.314.

僞書論者들의 또 하나의 주장은 《七篇》의 篇卷이 浩大하여 《素問》의 前後篇等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이 말은 七篇大論의 篇幅이 기타 篇보다 너무 길므로 僞書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도 꼭 타당하지만은 않다. 七篇의 문장이 긴 것은 사실이지만 七篇 중에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 《六元正紀大論》, 《至真要大論》이 가장 길고 《五常政大論》, 《氣交變大論》이 다음으로 길고 기타의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등은 그리 길지 않다. 《素問·陰陽應象大論》은 전편이 모두 1880字인데 비해 《天元紀大論》은 단지 1116자 뿐이어서 篇幅이 《陰陽應象大論》보다 훨씬 적다. 그러므로 篇幅의 크기, 글자 수의 많고 적음으로 眞僞를 구별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⁸⁾.

僞書論者들의 또 다른 주장은 《七篇》의 내용이 素問의 나머지 편과 조금도 상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결코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七篇》을 《素問》의 기타 篇章과 비교해 보면 文字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상에서도 그 기본정신은 일치하고 있으며 서로서로 내용을 보충해 주고 있다. 먼저 文字上으로 보면 《素問》의 기타 篇章은 韻語가 아주 많은데 《七篇》 중에도 역시 적지 않은 韻語가 있어 내용이 비슷하며 심지어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寤乎哉 消者瞿瞿 孰知其要 閱閱之當 孰者爲良⁹⁾”이라

하였고 《氣交變大論》에서도 “肖者瞿瞿 莫知其妙 閱閱之當 孰者爲良¹⁰⁾”이라 하였다. 내용이나 구성으로 볼 때 이 두 곳의 문자는 완전히 같다.

또 《素問·舉痛篇》에서 “善言天者 必有驗于人 善言古者 必有合于今¹¹⁾”이라 했고 《氣交變大論》에서는 “善言天者 必應于人 善言古者 必有合于今¹²⁾”이라 하였다. 역시 의미에 있어서나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다. 韻語를 사용하는 것은 先秦時代 문장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七篇》과 《素問》의 나머지 諸篇은 文字上으로 위와 같이 상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相同한데 이는 《七篇》과 《素問》의 나머지 기타 篇章이 모두 동일 시기의 작품임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내용면에서 살펴 볼 때 《七篇》과 《素問》 諸篇의 내용은 곳곳에서 상통하고 있으며 또한 서로 보충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七篇》 중 五味와 五臟 사이의 補瀉關係가 《七篇》 속의 내용이 《素問·藏氣法時論》 중의 記述 내용과 완전히 같다. 또 《素問·六節藏象論》에서 “天以六六爲節”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는데 素問諸篇에서 깊은 해석이 없다. 《六微旨大論》에서도 “六六之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의 전문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이후에 대답을 하고 있다. 原文을 보면 “願聞天道六六之節 盛衰何也¹³⁾”라 한 뒤에 岐伯이 대단히 분명한 대답을 가하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 8.

10) 洪元植, 上揭書, p. 24.

11) 洪元植, 上揭書, p. 38.

12) 洪元植, 上揭書, p. 141.

13) 洪元植, 上揭書, p. 132.

8) 方藥中, 許家松著,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33.

고 있다. 原文을 보면 “上下有位 左右有紀 故少陽之右 陽明治之 陽明之右 太陽治之 太陽之右 厥陰治之 厥陰之右 少陰治之 少陰之右 太陰治之 太陰之右 少陽治之”¹⁴⁾라 하였다. 이 말은 “六六之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三陰三陽이 六氣를 통솔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素問·六節藏象論》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보충 내용이다. 이러한 예는 곳곳에 수두룩하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七篇》과 《素問》의 기타편장과 “略不相通”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4. 《七篇》은 《陰陽大論》일 가능성이 크다.

張仲景은 《傷寒論》의 序文에서 “撰用《素問》《九卷》《八十一難經》《陰陽大論》”¹⁵⁾이라 하여 그가 《傷寒雜病論》을 지을 때 위의 책들을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傷寒論》에서 《陰陽大論》을 인용한 部分은 王叔和가 傷寒例中에서 인용한 “春氣溫和 夏氣暑熱 秋氣清涼 冬氣冷冽 此則四時正氣之序也”¹⁶⁾라고 한 한 句節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林億 등은 王冰序의 注에서 評述하기를 “竊疑此七篇 乃陰陽大論之文 王氏取以補所亡之卷”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并論 補亡의 說은 後代의 많은 醫家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黃以周는 “王氏好言五運六氣 又并陰陽大論于素問中”이라 하였고, 四庫全書提要 등의 책도 역시 이러한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¹⁷⁾. 그러

나 앞에서 王叔和가 인용한 《陰陽大論》의 文章이 運氣七篇中에 보이지 않으므로 七篇大論이 《陰陽大論》에서 나왔다는 說을 부정하고 七篇大論이 道家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七篇大論이 《陰陽大論》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王冰以前の 素問版本에는 運氣의 내용이 실려있지 않다가 王冰이 補入한 이후에 運氣가 《素問》속에서 나타나는데 張公의 秘本속에 運氣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가 아니면 舊藏之卷속에 運氣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王冰이 先生郭子齋堂에서 얻은 張公秘本은 “文字昭晰 義理環周 一以參詳 群疑氷釋” 등의 말로 보아 당시에 전해오던 《素問》中の 良質의 版本일 가능성이 크다. 張公秘本을 당시에 전해지던 《素問》版本으로 볼 때 당연히 舊藏之卷이 運氣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王冰이 단순히 舊藏之卷이라고 하고 책의 제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말속에서 우리는 예전부터 간직해오던 책으로 내용상에 있어서 舊藏之卷은 素問의 諸篇과 상통하고 있었으리라고 推論할 수가 있다. 王冰은 舊藏之卷의 내용이 《素問》諸篇과 거의 일치하므로 자연스럽게 《素問》속에 補入하였으리라 사료된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運氣七篇》을 《陰陽大論》이라고 주장하는가?

첫째 《素問》의 陰陽應象大論이 《陰陽大論》의 文章일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는 둘 다에 모두 大論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것과 應象

14) 洪元植, 上揭書, p. 132.

15)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杏林出版社, p. 19.

16) 張仲景, 上揭書, p. 75.

17) 王琦等, 運氣學說的研究與考察, p. 330.

의 두 글자를 빼면 명칭이 같아진다. 더 구체적으로 甲乙經 卷之六에 陰陽大論이라고 제목을 한 곳이 있는데 그 곳의 내용이 지금의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皇甫謐은 생존 시대가 張仲景과의 거리가 70-80여년에 불과하므로 그의 생존 당시에 《陰陽大論》이 전해 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皇甫謐은 《素問》, 《鍼經》, 《明堂孔穴針灸治要》의 3부의 책을 근거로 《甲乙經》을 지었지 《陰陽大論》을 참고했다는 말은 없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는 《內經》이 一人之手, 一時之作이 아니므로 당시의 《陰陽大論》이 자연스럽게 《內經》 속에 삼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陰陽應象大論》과 《七篇大論》은 같은 책일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는 《陰陽應象大論》과 七篇의 篇目인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至真要大論》에 모두 《陰陽大論》처럼 大論으로 편의 제목이 일치하고 있으며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陰陽應象大論》과 七篇大論의 문장은 많은 곳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陰陽應象大論》에서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¹⁸⁾라 하였고, “天有四時五行 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藏 化五氣 以生喜怒悲憂恐”¹⁹⁾이라 하였으며 또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陰陽者

血氣之男女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陰陽者 萬物之能始也”²⁰⁾라 하였는데 이와 거의 동일한 문장이 《天元紀大論》에 실려있다.

《陰陽應象大論》에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²¹⁾등의 一系列의 내용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五運行大論》에 실려있다.

《陰陽應象大論》에 “天地之動靜 神明爲之綱紀”²²⁾라는 문장이 있는데 《氣交變大論》에 거의 같은 문장이 있다.

《陰陽應象大論》에 “天不足西北 地不滿東南”²³⁾이라는 말이 있고 《五常政大論》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있다.

《陰陽應象大論》에 “風勝則動 熱勝則腫 燥勝則乾 寒勝則浮 濕勝則濡瀉”²⁴⁾라 하였는데 《六元正紀大論》에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陰陽應象大論》에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²⁵⁾이라 하였는데 《至真要大論》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陰陽應象大論》과 運氣七篇은 古醫書인 《陰陽大論》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크며 林億 등의 七篇大論이 《陰陽大論》이라는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王叔和가 傷寒例에서 《陰陽大論》에서 인용한 “春氣溫和, 夏氣暑熱……”²⁶⁾의 내용은 運氣學說중 主氣를 言及한 것으로 《七篇》과 내용면에서 비슷하므로 《七篇》이 陰陽大論

18) 洪元植, 上揭書, p. 18.

19) 洪元植, 上揭書, p. 18.

20) 洪元植, 上揭書, p. 19.

21) 洪元植, 上揭書, p. 18.

22) 洪元植, 上揭書, p. 20.

23) 洪元植, 上揭書, p. 20.

24) 洪元植, 上揭書, p. 18.

25) 洪元植, 上揭書, p. 18.

26) 張仲景, 上揭書, p. 75.

에서 나왔을 가능성은 더욱더 높다.

또 張仲景은 《金匱要略》 臟腑經絡先後病脈證第一篇에서 “有未至而至, 有至而不去 有至而太過”²⁷⁾ 등의 문제를 討論했는데 이는 《陰陽大論》에서 引用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六微旨大論》에 있는 “至而至者和, 至而不至, 來氣不及也, 未至而至, 來氣有餘也”²⁸⁾라 한 內容과 서로 相通한다. 또 이어서 “冬至之後, 甲子夜半少陽起, 少陽之時, 陽始生, 天得溫和”²⁹⁾의 內容도 記述하고 있는데 이러한 內容들을 《七篇》과 大조해보면 깊은 관련성이 있다.

王冰이 비록 補入한 冊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統一된 內容과 體制를 갖추고 있고, 運氣學說理論이 陰陽五行學說의 기초위에서 成立되어 있으므로 이 原書의 이름이 《陰陽大論》일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하수 있다.

王冰이 失傳되었던 《陰陽大論》을 《素問》 가운데 補入했다면 《陰陽大論》도 《素問》과 同時代의 별도의 醫學經典著作으로 당시의 醫學 成就를 反映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公認하기를 《內經》은 一人之手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一時之作이 아니라고 할 때 《七篇》을 僞書라 하여 《七篇》을 《素問》에 除外시킬 하등의 이유가 存在하지 않는다.

5. 運氣學說의 成立時期

淸의 繆希雍은 《神農本草經疏》에서 “原夫五運六氣 其起源于漢魏之後”라 하여 漢

과 魏(A.D 220-265)이후에 나온것이라 하였고 日人 丹波元胤은 隋(A.D581-618)이후에 나온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運氣七篇》의 具體的인 內容으로 分析해 볼때 《七篇大論》에서는 모두 干支紀年法을 採用하고 있는데 이는 이것이 東漢時期의 作品이라는 有力한 證據가 된다. 비록 干支紀年은 《淮南子·天文訓》 등을 보면 戰國時代에 起源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東漢의 章帝元和二年 A.D 85년, 四分曆이 頒布된 이후이다.

또 天體演化學說, 氣象物候等의 變化狀況과 東漢時期의 天文曆法《易緯》 및 鄭康成의 注等 相關된 文獻과 大조해보면 비슷한 곳이 매우 많다. 따라서 運氣學說의 成立은 비록 이 時代보다 빠를 가능성이 있지만 學術體系의 形成과 《運氣七篇》의 成編은 東漢時期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³⁰⁾ 《運氣七篇》을 《陰陽大論》이라고 할때 運氣學說의 成立은 四分曆이 시행된 A.D 85년에서 張仲景이 傷寒論 序文에서 言及한 建安紀年인 A.D 196년 이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III. 素問遺篇의 眞僞

이는 또 《素問失篇》 《素問亡篇》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二篇으로 “刺法論篇第七十二”와 “本病論篇第七十三”이다.

王冰이 《素問》을 編次할 때 《素問》을 二

27) 朴憲在譯註, 完譯金匱要略, 서울, 書苑堂, 1978. p. 66.

28) 洪元植, 上揭書. p. 132.

29) 朴憲在譯註, 上揭書. p. 66.

30) 山東中醫學院等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87.

十四卷으로 整理하면서 위의 二篇에 대해서 “亡”이라고 注로써 밝히고 있다. 이는 당시의 《素問》이 第七一卷을 亡失했을 뿐만 아니라 七十二篇과 七十三篇이 일찍이 亡失되어 겨우 目錄中에서만 篇名이 保存되어 왔음을 說明하는 內容이다.

그러나 北宋의 高保衡, 林億 등이 醫書를 校勘할 때 이 兩篇이 돌연히 出現하여 經文과 함께 注釋까지 存在해 있었다. 이에 대해 林億 등은 “按컨대 病能論篇末王冰注에 云: ‘世本既闕第七二篇이라하니 謂此二篇也어늘 而今世有《素問亡篇》及《昭明隱旨論》하야 以爲此三篇으로 仍托名王冰爲注하나 辭理鄙陋하야 無足取者라”³¹⁾ 하였다. 따라서 이 篇이 나온 時期는 唐代 王冰 이후에서 北宋 林億 등의 以前이 됨을 미루어 짐작할수 있다. 그 撰者는 未詳이나 文體와 格式이 《素問》과는 完全히 다르고 특히 “刺法論篇第七十二”本文中에 “資取亡法 今(令)出《密語》”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密語》는 王冰이 지은 玄珠密語로 더욱 확실히 이 冊은 後人이 제목을 假托해서 지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日人 丹波元胤은 丹波元簡의 말을 인용하여 “按컨대 先子曰 今所傳遺篇一卷은 此乃王冰以後人所託而作이니 經註一律로 出於一人之手라. 辭理淺薄하야 不足取로대 而馬氏稱之하니 亦何不思之甚也”³²⁾라 하여 王冰以後사람의 僞作이라 하였는데 이는 타당한 見解이다.

이 兩篇의 內容을 고찰해 보면 주로 運氣學說의 上下升降規律과 不遷正, 不退位 등의 問題를 論述하고 있으므로 비록 《素問》의 原書는 아니지만 運氣學을 研究하는데 중요한 著作이 됨

에는 否定할수 없다. 그후 40여년 뒤에 劉溫舒가 지은 《素問入式運氣論奧》에 또 나타나게 되고 아울러 《素問遺篇》이라고 이름하고 있다. 이른바 《素問遺篇》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劉氏의 所作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周學海는 《素問評文》에서 이를 評議하여 이르기를 “二篇은 義淺筆稚하니 世皆斥其爲僞矣라 揣其時컨대 當于王啓玄之後오, 劉溫舒之前이니 決非溫舒所自作也라 時有古義가 雜出其間하니 如入疫室者 | 先存想五臟之神은 見于《巢氏病源候論》이오 卽其分辨五疫五癘이 成于三年은 俱單有精義하니 必有所受之矣라 第篇中僅排次其位하고 而無所發明其理하며 注中更引用咒語하니 尤爲鄙俚라 故二篇者는 紀數之文也니 不當以義理繩之라”³³⁾고 하였다. 여기서 存想이란 道教修煉方術로써 一名 存思라고도 한다. 이는 精神을 집중하여 생각을 떠나지 않는 것인데 道教에서는 사람의 몸속에는 3만6천 神이 主守하고 있고 “日日存之, 時時相續, 念念不忘, 長生不死”³⁴⁾한다고 여기고 있다. 唐·司馬承禎이 지은 《天隱子》에서는 “存은 謂在我之神이오 想은 謂想我之身이라 閉目卽見自己之目하고 收心卽見自己之心하니 心與目이 皆不離我身하고 不傷我神하면 則存想之漸也”³⁵⁾라 하였다. 이를 통해 볼때 二篇은 僞書이고 著者는 道家流의 수행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31) 王冰, 上揭書. p. 284.

32) 多紀元胤 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13-14.

33) 程士德, 內經理論體系綱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16.

34) 張志哲主編, 道教文化辭典, 上海, 江蘇古籍出版社, 1994, p. 806.

35) 張志哲主編, 上揭書. p. 806.

IV. 結 論

《素問運氣七篇》과 《素問遺篇》의 眞僞에 關於하여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王冰이 《七篇》을 補入한 것은 그의 治學態度가 嚴謹했던 것으로 보아 傳本에 바탕을 두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運氣七篇》이 僞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七篇의 編卷이 浩大하여 《素問》의 나머지 篇과 같지 않다고 주장하나 《陰陽應象大論》 등의 문장이 《天元紀大論》보다 훨씬 篇幅이 크므로 그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3. 僞書論者들은 또 七篇의 內容이 《素問》의 기타 篇과 內容上에서 一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七篇의 문장이 韻語로 되어 있고 많은 문장이 서로 相通하고 있으며, 不足한 內容을 서로 補充해주고 있으므로 이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4. 林億等은 《新校正》에서 《七篇大論》이 古醫書인 《陰陽大論》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타당성이 있다. 甲乙經의 《陰陽大論篇》에 있는 내용이 지금의 《素問·陰陽應象大論》의 내용과 동일하고 《素問·陰陽應象大論》과 運氣七篇의 내용이 相似한 곳이 많으며 《素問·陰陽應象大論》과 七篇의 제목을 모두 大論이라 칭한 것으로 보아 《素問·陰陽應象大論》과 運氣七篇은 古醫書인 《陰陽大論》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또 傷寒例의 《陰陽大論》 인용문이 四時氣候變化를 언급한 내용으로 七篇과의 上關性이 있으므로 運氣七篇이 《陰陽大論》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5. 따라서 王冰이 말한 “舊藏之卷”은 《陰陽大論》일 가능성이 크다.

6. 運氣學說의 成立時期는 干支紀年의 사용으로 미루어 四分曆이 시행된 A.D 85년 이후 그리고 《運氣七篇》이 《陰陽大論》일 경우 A.D 196년 이전이라고 추측된다.

7. 《素問·陰陽應象大論》이 《陰陽大論》의 遺文이라고 할 때 내용이 상통하는 七篇大論을 僞書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8. 《素問遺篇》은 僞書로써 王冰 이후 林億等이 新교정을 하기 이전의 시기인 A.D 762-1057에 道家流의 수행자가 지은 듯하다.

參考文獻

1. 朴憲在譯註, 完譯金匱要略, 서울, 書苑堂, 1978.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3. 多紀元胤 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4. 方藥中, 許家松著,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5. 山東中醫學院等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6. 王琦等, 運氣學說的研究與考察, 北京, 知識出版社, 1989.
7. 王琦等 素問今釋 서울 成輔社影印
8.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9. 魏徵等, 隨書, 北京, 中華書局, 1992.
10.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杏林出版社.